

큰스님 수행한담

선행 어렵지 않아요”



1950년 정기법회를 지도했던 해군불자들과 함께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를 가졌다.

말이 전해져 오던 곳이에요. 누구나 공부하면 문수동자를 친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겉모양은 그렇게 보였지만 직접 대화를 하고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밤 10시쯤 되어서

성불하고 도를 통했다 하더라도 차등이 있습니다. 근근히 살얼음 같은 도를 통했다는 두꺼운 얼음의 상태에 도달했는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러 오유심전, 즉 깨달음에도 깊고 얇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름이라 마루에 앉아 정진을 하는데 그 맞은편 산에 동그런 불이 하나 있어요. 한참을 보고 있으니 한 50m 정도 이동을 하더군요. 그러면 분명히 사람의 불이 틀림 없다는 판단이 서더군요. 그래서 산삼 캐는 사람의 불인가 보다 했는데 그 불이 금방 제 자리로 돌아오더군요. 그 불 보고 그 이튿날 거기 무엇이 있었나 싶

마음공부 한다는 것은  
요동치는 중생심을  
끊임없이 비워내는 일

일과적으로 한번씩 외우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후 마산포교당에 와서 자발적 신도들이 늘 금강경 녹음을 해달라고 녹음기를 갖다 놓더군요. 녹음을 할라고 하니 어색하고 해서 그냥 테이프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은 계획적으로 독송을 한다 이렇듯 했지만 나는 경 읽는 것이 본래 평범한 내 생활인 관계로 다만 내가 산삼을 먹게 된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면 보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1973년 이었는데 한국불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랬는지 불자들이 가정마다 그 테이프를 사서 금강경을 들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가까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어서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독경 테이프 내고 평생을 포교당에서 포교하는 것으로 살아 왔습니다. 나는 큰절 주지 말이 본적도 없고 단지 법사로 평생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절에 다니고 불법 알아도 실천 없으면 헛일  
‘공부’와 ‘보시’ 깨달음으로 가는 두바퀴

있다고들 얘기하더군요. 내가 독송 테이프를 만들게 된 계기를 무척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더군요. 그러나 내가 그 테이프를 만들게 된 것은 계획을 세우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독경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부터 36년전 오대산 중대 보궁에서 출발합니다. 상원사 위에 있는 적멸보궁에서 여름한철 기도를 하는데 하루 12시간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기도하는 이들이 많지를 않고 내 혼자 하다가 피곤했어요. 고산지대라 늘 비가 오락가락 했는데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1시에 올라가서 4시까지 기도를 한 후 법당 청소를 하고 문을 열고 나오니까 보궁앞에 하얀 옷을 입은 열일곱 살쯤 돼 보이는 젊은 청년 하나가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그래서 방 청소를 찌꺼기를 한쪽 구석에 버리고 자세히 볼 양으로 가까이 가니 그만 간대 온데가 없어요. 그곳은 그전부터 문수동자 친경이라는

어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사람의 자취도 없고 호랑이의 자취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 생각에 불이 갔던 그 자리에 무엇인가 있겠다 싶더군요. 오대산에는 산삼이 많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들림없이 산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산삼이 있는데 아마 산신 기도를 해야 산삼을 캘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는 아직 여름이었고 산삼은 입추를 지나야 효험이 있기 때문에 7월 초순에 삼일간 산신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이 산삼 캘려고 산신기도 하더니 자존심이 상해서 삼일 동안 금강경을 읽었어요. 금강경을 삼일 동안 읽고 나서 그 자리를 갔어요. 그곳에 이상한 풀이 하나 있어서 손에 쥐고 뽑으니 산삼이더군요. 손에 쥐고 안 볼하고 산삼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금강경을 읽게 된 것이 매일 읽게 되었어요. 늘 금강경을

요즘은 우리때와는 공부여건이 많이 달라요. 지금은 절에 가면 승가대학이나 선방이나 전부 공양을 하면서 공짜로 먹여 주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강원에 가서 공부를 할려면 자기 양식, 학비를 가지고 가야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스님네들 한달 양식이 쌀 서말이었는데 그 서말 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래도 공부하겠다는 열의가 대단했죠. 해방이후에 통도사 강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큰절에서도 살림이 어려워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해 방학을 일찍하고 학인들을 내보냈는데, 나는 진주 연화사에 가서 부전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는 콜레라가 심해서 그곳에 있던 4명이 모두가 콜레라에 걸렸어요. 세 사람이 하루 한사람씩 죽는 것을 보면서 시체를 덮어놓고 예불 모시고 그랬습니다. 나는 '소위 산중에서 공부하다가 도시에 와서 콜레라에 걸려 죽어서 되겠다' 싶어 관세음보살 기도를



조 정 봉

(서울시청 불심회장)

<T>

우여곡절속에 불교모임은 창립했지만 법회보기가 여간 쉽지 않았다. 당시 시대적 상황속에서 한가롭게 수행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럴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타하게 기다리는 직원불자들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나는 힘을 얻었다. 내친김에 '부처님 가르침이나 전해보자'라는 대원력을 세웠다. 먼저 2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대법회를 봉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를 간부직원에게 상의했으나 일거에 거절당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시민화합기원대법회'라는 법회 주체와 일정을 정했다. 또 국립 현충원내에 있는 지장사에 불상도 모시기로 했다. 그런데 주위에서 난리

의 일이다. 당시 시대상황으로는 구청에서 법당을 마련하고 법회를 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회고해보면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다. 일반행정기관 중앙 강당에 법당을 마련하고 법회가 진행되는데도 유·무형의 압박이 가해지고 뒷자리에 있는 사람은 불자인데도 불자가 아니라는 말하는 시대였다. 행정기관에 법석을 마련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있을 수도 있지도 않았던 일이었으니 어찌 말로써 다 형용할 수 있겠는가. 이같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법회활동을 계속기 위해서는 공부수행도 철저히 해야 허물이 안생기기 때문에 밤낮으로 뛰었다. 집에는 쌀이 있는지 자식들은 학교에 잘 다니는지

주위 반대불구 구청강당서 대법회  
서울시내 구청불교모임 22곳 결성

가 났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모한 짓을 하느냐. 죽고 싶으냐. 살고 싶으냐"는 등 정말 야단법석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 갈길을 갑니다'라고 결심하고 계속 추진했다. 주위에서



는 지금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각종 불법 사찰 등을 쫓아 다녔다. 이를 계기로 80년대 말 전국 최대 말 전국의 대법회 단체인 수행단체가 속속 창립되었다. 심월회가 주축이 되어 지금까지 22년동안 창립된

구청 불교모임만 해도 22곳이 족히 된다.

나는 이제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함께 있던 법우의 장례를 치루고 시신을 몰으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곤 한다. 정국 신하를 누비며 우리 호법신장이 되자고 맹세하던 때가 그리워지는데 이제 그 법우들이 간곳은 흔적을 찾을길 없으니 말이다. '하늘과 땅 내가 같은 뿌리요. 만물이 나와 한몸이라(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一體)' 이제야 대행스님의 사자후가 나를 휘어잡고 있음을 알리라. 또한 승찬조사의 신심명에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 상응하지 못하고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못할 곳이 없다'고 하였으니, 부처님께서 사해에 던지신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을 부여받고 심바라밀을 베토로 삼아 팔정도 행하며 살아 가리라.

(mhcheon@buddhopia.com)

국내 최초 단행본 출간!

부처님은 전생에 청개구리였다!

# 부처님 전생이야기

서희권 엮음  
(문화계 전문위원)

2500여년 전에 씌어진 우화처럼 재미있고 눈물겨운 부처님 전생의 보물창고 자타카!

부처님의 전생은 기구하기 짝이 없다. 까마귀, 거북이, 고끼리에서부터 아이 낳는 여자, 도둑으로도 태어났었다. 한마디로 이 책은 부처가 되기 전 보살로 살았던 전생 이야기인 것이다. 이들 설화는 동화처럼 아주 재미있기도 눈물나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나 아라비안나이트, 우리나라 삼국사기에서까지 영향을 주었다. (전2권 1권 7,500원)

# 박삼중 스님의 인연 이야기

처음으로 고백한 삼중 스님의 진솔한 라이프 스토리!

세 명의 의붓아버지를 둔 기막힌 팔자 이야기부터, 출가·환속·출가에 얽힌 숨기고 싶었던 여자 이야기, 그리고 사형수의 대부가 되기까지 처음으로 공개한 자전 에세이!

서대문 구서초 앞 담에서 태어난 삼중 스님! 첫돌날 부처님을 모독하고 세상을 등진 젊은 아버지, 형무소에 수감된 또 다른 남자를 시중시키기 위해 예교도관이 된 어머니! 그 어머니의 거듭된 재혼으로 세 명의 의붓아버지 곁에서 눈칫밥 먹던 소년 시절. 그리고 맨발의 출가와 환속으로 이어진 구도의 길에 만난 여인들과의 애절한 사랑과 이별. 재가자 교화에 나선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문순 경영자, 장신명 목사, 최 소피아 수녀 등과의 만남에서부터 보통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녀무나도 절친 인연 이야기들!

(제1권) 다시 태어난 스님 인연록 | (제2권) 그 만남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전2권 | 신국판 | 각권 7,500원)

문학수첩 전화: (02) 790-5999 팩스: 790-6656  
http://www.moonhak.co.kr \*이 책의 수익금(인세)은 저자자를 위해 쓰여집니다